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뛰놀고 즐기며 스트레스 해소해요!”

※ 이 사례는 박혜영 천안새샘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새샘중학교(이하 새샘중)의 'Wee클래스'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내 캠프와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샘중은 전학 경험을 가진 학생이 많으며,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샘중에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선배와 함께하는 스트레스 해소캠프'와 'Get out! 스트레스 캠페인'의 인기가 높습니다.

학교에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스트레스 해소 캠프'

새샘중 Wee클래스는 '선배와 함께하는 스트레스 해소 캠프'를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중학교에 갓 입학해 학교생활 적응에 스트레스를 받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캠프에 참여하길 원하는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요.

캠프 진행은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Wee클래스 소속 동아리 '새샘 해피플루(이하 해피플루)'가 맡습니다. 해피플루는 1학년 후배들이 즐길 수 있는 캠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구성하지요.

캠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진행됩니다. 오전 시간은 모둠구성과 해피플루 학생들이 기획한 '런닝맨' 게임을 합니다. 가장 먼저, 1학년 학생들을 무작위로 5~6모듬으로 구성합니다. 이후 각 모듬은 모듬별 미션을 수행하는데,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같은 단어를 동시에 말해야 하는 '이구동성' 미션과 같이 친구간의 우정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미션에 참여하지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던 1학년 학생들이 모듬별 미션을 수행하며 협동심을 발휘하고, 점차 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모든 미션 수행 과정은 3학년 학생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선후배간의 정도 쌓을 수 있지요.

오후에는 전체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눠 신문지 던지기과 뭉치기 게임을 실시합니다. 신문지 던지기 게임은 신문지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이를 잘게 찢어 상대팀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 후 던져놓은 신문지 조각을 모아 더 큰 뭉치를 만드는 팀이 이기는 뭉치기 게임도 진행합니다. 신문지를 찢고 던지며, 친구들과 마구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해소 되는 것이지요.

캠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던 1학년

학생들이 또래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1·3학년 학생들이 캠프가 끝난 후에도 인사를 나누며 좋은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지요. 이런 경험을 한 1학년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 자신이 주도적으로 캠프를 기획해보며 후배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요.

점심시간 활용한 '스트레스 Get out!'

학생들의 스트레스 줄이기 활동은 캠페인으로도 진행됩니다. Wee클래스 소속의 또 다른 동아리 '솔리언 또래상담사'가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시험기간의 점심시간을 활용해 'Get out! 스트레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2인 1조 풍선 터트리기 △지압슬리퍼 신고 줄넘기 30개 하기 △몸에 만보기를 붙이고 30초 안에 만보기 80회 만들기 △홀라후프를 돌리며 미션 수행하기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부스에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오늘은 무슨 행사를 하는지 묻고, 행사 시작 전에 미리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대구지역 교사동아리 ‘배움과 나눔의 교육연극연구회’ “교육연극으로 학생들의 소통·협동심·창의력 길러요”



교육연극에 대해 논의하는 ‘배움과 나눔의 교육연극연구회’ 교사들. 대구 성명여중 제공

교육연극을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움과 나눔의 교육연극연구회(이하 교육연극연구회)’는 대구지역 17명의 중·고교 교사가 모인 교사연구회 동아리다.

2011년 결성된 교육연극연구회는 수업시간에 교육연극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국어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화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표현법을 더욱 깊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극놀이 방법들을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영어·사회 교과 교사도 동아리원으로 합류해 연극을 활용해 영어지문과 사회 현상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교육연극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최정연 대구 성명여중 교사에게 교사 동아리 운영 방식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교사들이 직접 연기 해보며 연극놀이 기획

교육연극은 학생들이 연극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통·협력·공동체의식·창의력 등을 향상시키는 ‘과정 중심의 활동’이다. 이러한 교육연극의 효과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육연극연구회는 한 달에 한 번 교사들이 직접 모여 연극을 공부한다. 직접 몸짓을 통해 자기소개를 해보면서 몸을 활용한 표현법에 대해 배우고, 교과서 속 지문을 활용해 연극 대사와 장면을 구성해보는 것.

이를 통해 교사들은 교과서 속 인물이 되어 감정을 얘기해보는 ‘Hot Sitting’, 학생들이 3인 1조로 역할극을 수행해보며 서로 소통하는 게임인 ‘너 뭐하니?’ 등의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고안해냈다. 교사들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해본 뒤 학생들의 반응과 교사의 느낀 점 등을 공유하며, 연극놀이의 개선점을 찾는다.

학생들이 단순히 연극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수업이 끝나버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연극 과정을 설명문으로 적어본 뒤 이를 책으로 엮어보는 ‘메모리 북’을 제작하게 하거나, 활동에서 느낀 감정을 비유법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

다. 이처럼 연극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사들은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등 연극을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교육연극연구회는 ‘메모리 북’ 제작 조연을 구하기 위해 북아트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연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심리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심리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듣기도 했다.

최 교사는 “수업에 연극을 활용하려면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가해야 한다. 교사가 단순히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수업구조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교육연극연구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연극을 수업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면서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좀 더 많이 소통하고, 수업도 혁신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직무연수로 동료교사에게 교육연극 전파

교육연극연구회는 매년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은 주변 동료 교사들을 위한 직무연수 활동도 진행한다. 일주일에 한번 3시간씩 동료교사들에게 수업에 교육연극을 활용하는 방법을 전달한 것.

교육연극연구회의 직무연수에서도 연극이 활용됐다. 교육연극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교육연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교사들과 함께 직접 연극을 해보는 방식으로 직무연수를 진행한 것. 연수에 참여한 교사 5인이 한 조를 이뤄 상상력을 발휘해 이야기를 만들어 본 뒤 해당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갈등구조, 해당 상황에 어울리는 대사도 직접 정해 연극을 수행해봤다.

최 교사는 “연극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갖고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며 연극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야기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쁨을 느끼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연극연구회는 학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창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